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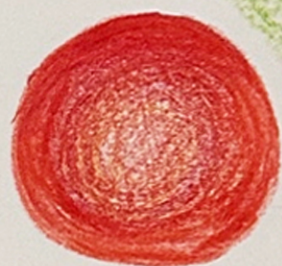
공자의 말, 나를 깨우다

홍은지

공자가 말했다.

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?
그 말은 오래전의 언어지만,
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.

나도 고개를 끄덕인다.



그래, 기쁘다.

새로운 것을 배우고, 마음에 새기고,
조금씩 익혀가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따뜻하다.

논어 한 구절,
그 짧은 문장이
오늘의 나를 멈추게 하고,
깊게 숨쉬게 하며
다시 나아갈 용기를 준다.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논어 <공자>
작품 설명	이 작품은 공자의 논어를 읽고 옛 시대의 지혜를 통해 일상 속 배움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다. 짧은 문구지만, 이를 통해 잠시 일상 속 쉬어감을 느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표현했다.